

“제2의 3.1운동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학회, ‘응답하라1919: 3.1정신과 교회의 미래’ 주제로 제47차 정기학술대회

다가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기독교학회(회장 노영상)가 “응답하라1919: 3.1정신과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제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2일과 13일 양일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학회에 대해 회장 노영상 박사는 “3.1운동의 참된 정신을 오늘 여기에서 새롭게 구현해내는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학문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첫날 개회예배 설교는 창천교회 박춘화 감독이 맡아 “한국교회와 3.1운동”(민 9:1-5)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박춘화 감독의 창천교회는 그동안 ‘3.1운동 기념예배’로 한국교회를 섬겨왔고, 때문에 박 감독은 누구보다도 3.1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목회자였다. 그는 3.1운동에 대해 “기독교가 앞장섰던 독립운동이요 민족운동”이라 말하고, “기독교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말미암아 한국사회 기독교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운동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박 감독은 “제2의 3.1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3.1정신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해 고민하는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갈등 등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3.1정신을 이어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필코 이룩하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밝히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평화를 전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



“3.1정신 다시 되새기며”

한국기독교학회가 ‘3.1운동’을 주제로 제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창천교회 박춘화 감독은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에 제2의 3.1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규진 기자

확신 한다”고 했다.

주제 강사로는 광워관 교수(에모리대)와 최재건 교수(연세대)가 나서서 각각 “동아시아 관점에서 바라본 탈식민 신학” “3.1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광 교수는 3.1운동 100주년이 동아시아에서 탈식민신학(postcolonial theology)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 한다”고 말하고, “동아시아가 세계 정치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이 되면서,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합입어 이 시대 도전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독교인의 3.1정신에 대해 “신앙의 확신을 행동화한 것”이라 설명하고, “자유와 정의는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였는데, 여기에서 선구자적 자세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란 절대 명제를 추구하고 군국주의를 몰아내고 민족주의를 표방했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가 민

족의 고난에 많은 피해를 당하며 동참했다”고 말하고, “해방 대한민국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그들의 활동으로 교회 본질과 부합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립에도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그는 “3.1운동 당시 전인구의 1% 남짓했던 한국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공신력과 공공성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3.1운동 때의 모습과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당시 기독교가) 국가사회,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기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행사는 주제 강연과 개회-폐회에 배 외에도 지학회별 자유 주제 발표와 지정 주제 발표의 시간이 있었다. 또 신진

학자 소개와 간담회 시간도 마련됐으며, 특별히 개회예배 때는 소망교회(담임 김지철)의 지원으로 소망학술상 시상식도 있었다. 이번 해 수상자로는 한국교회사회학회 김선영 박사와 한국신약학회 이승문 박사가 선정됐다. 각각 “마르틴 루터: 신학 개혁, 교회와 사회 개혁” “조기 그리스도교의 목회적 상황과 신학적 대응”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김규진 기자

제3세계 선교 새 패러다임 “대학 설립”

PAUA, 20일 교육선교포럼 앞두고 기자간담회

12일 오전 11시 제 3회 PAUA(사단법인 파우아교육협력재단) 교육 선교 포럼 기자간담회가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PAUA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 3세계에 선교 목적으로 세운 기독교 대학의 연합체다. 또 PAUA는 교육 선교 방향성을 모색하고, 제 3세계에 세워진 대학교에 파송할 교수, 행정직원의 정보 공유를 위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3회 PAUA 교육 선교 포럼은 10월 20일 삼일교회 3층 교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손봉호 PAUA 이사장 겸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설교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승주 탄자니아 연합대학 교수, 손봉호 이사장, 강성택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먼저 손봉호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사구 선교사들이 한국에 연세대, 이화여대 등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후진국이 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교육선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연히 영국 레가튼 인스티

튜트에서 발표한 번역지수를 본적이 있는데, 세계 1-11위 까지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개신교 전통을 가진 나라였다”고 전했다.

또 그는 “개신교 국가들이 변명한 이유는 바로 개신교 특성상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강조하는 데 있다”며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루터는 교육에 힘썼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일찍이 기독교 선교가 이뤄진 국가 중 교육이 잘 발달 돼 있지 않은 나라는 인도”라고 전했다. 이유로 그는 “카스트 제도로 인해 기독교 인구가 하위계층에 몰려있고, 상위 계층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며 “효과적 선교를 위한 기독교 학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하여,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중요한 전략은 지도층의 복음화”라며 “지도층을 복음화 하려면 상위 계층 보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교육세대에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할 때 복음 선교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저 개발 국가는 이제 경제 원조로만 북

음 선교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 선교를 통해 국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은 그 나라의 발전과 복음 전도에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생 한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그는 “말라위에 간 적이 있는데 70년대 한국이 지금 말라위보다 더 가난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DAC에 가입돼 있어 외국에 원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말라위 뿐 아니라 제 3세계 국가 사람들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 비결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여, 그는 “이제는 경제원조보다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다”며 “그 나라들이 적극 원하고 한국으로부터 배우길 원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때 기독교가 총력을 기울여 교육 선교에 이바지 하고, 복음과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치 연세대, 이화여대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공헌한 것처럼 말이다”라고 덧붙혔다.

끝으로 “그는 교육 자원이 우리나라만큼 풍부한 나라는 없다”며 “또한 박사급 인력 중 크리스천 숫자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도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인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제 3세계 인적 자원 양성에 힘을 쏟자”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한국은 식민지 착취를 한 국가도 아니었기에, 제 3세계 국가는 우리나라 교육자에 대해 상당히 열려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 선교에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택 PAUA 사무총장도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화학당, 언더우드학당은 초창기에 조그마한 학교였고, 고아 같은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시작한 학교를 이었다”며 “이제는 이 학교들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이끈 건실한 기독교 대학이 됐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이처럼 교육선교는 100년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며 “어려운 속에서 씨를 꾸준히 뿌리면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 3세계에 해외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는 재정, 학생모집, 교수 모

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대학들이 창립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 되고 급방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이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PAUA는 교육 선교 포럼을 매년 4회씩 개최할 예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양성하고, 크리스천 리더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자단 질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으로 “파우어 교수요원은 어떻게 파송하나”였다. 이에 강성택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유는 바로 현재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교수, 행정직원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라며 “컨퍼런스는 교육 선교의 방향 모색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대학의 필요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모든 대학의 필요를 아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대학이 요구하는 선교 자원에 관한 모든 정보가 결집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선교사로서 교육선교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 강성택 사무총장에게 던져졌다. 그는 현재 C국, Y대학에서 교수사역을 하고 있다. 질문에 그는 “아무래도 복음 전도에 제한을 받는 국가이기

에 선교는 항상 어렵다”며 “그러나 복음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행실을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리 말로 복음을 잘 전한다 해도, 교수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강의를 전한다면 복음은 임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여, 그는 “그런 면에 있어 교육 선교는 효과적”이라며 “기독교에 적대적 편견이 있던 학생들도 교수들이 보여줬던 사랑을 기억하여, 졸업 후 어려운 사회생활로 인해 예수 믿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한 기독교 교수의 자세로 삶 속에서 학생들의 친구가 되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파키스탄, 중국 등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에서 교육선교를 통해 나라 발전과 더불어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손봉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도 덧붙였다. 그는 “이를 교육학에서 히든 커리큘럼이라 부르는데, 가령 수학교사는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 교사의 인격을 학생들도 배우게 된다”며 “이런 면에서 교육선교는 기독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국가에서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NAP 수정·삭제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반연,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규탄 집회

양성평등 이념의 헌법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2018년 10월 12일 오전

9시에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300개 단체들로 연합되어 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법무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각 정

부 부처가 추천한 단체는 참여시키지 않고, 법무부가 소위 코드가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목차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를 수립했다”면서 “목차와 내용이 대폭 수정된 NAP는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가지지 않고, 불과 6일(주말을 제외하면 4일)만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동반연은 “NAP에는 양성평등 이념의 헌법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주장이 대폭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온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종교단체를 노골적으로 지목했다”며 “헌법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성평등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서 제갈을 물리려는 공작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동반연은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하여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

는 NAP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또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내라 기자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을 더 가혹하게 박해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민족주의가 더 거세지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예배 금지, 체포, 고문 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속 폴리 대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버스나 기타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하면 체포된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교회 등록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법으로 가정에서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는 기독교인들을 경찰에 급습을 당해, 체포당하고, 매 맞고 벌금을 물기 쉽습니다.”(한국VOM 폴리 현속 대표)

전 세계 모든 곳의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함께 일하는 한국 VOM의 중앙아시아 동역자들은 자신을 나라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한다.

지난 8월, 타지키스탄 비밀경찰은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열 명을 체포, 개인당 한화로 백십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타지키스탄 국민 6개월 치 월급보다 많은 액수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종교를 새로 조사한 결과, 2017년에 종교 집회를 열거나 기독교 문서를 배포 및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263명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행정법 9장 489조는 “등록되지 않거나, 중단되었거나, 금지된 종교 단체와 사회 조직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판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조항을 이용해 오순절과 침례교를 비롯한 다른 개신교 교회들을 공격했다. 2018년 상반기 여섯 달 동안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80차례 기소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종종 위험 거리로 간주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당국자들이 목사와 신자들 집을 수색하여 물건들을 압수해갔다. 이 나라에서는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은 일상적 기독교 활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국 VOM의 카자흐스탄 동역자 가운데 장로교 목사가 있는데,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9개월 수감되어 있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동료 죄수 100여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카자흐스탄의 키질로르다(Kyzylorda) 지역에서는 성난 어떤 부부가(할머니도 함께) 한 가정교회 목사를 찾아와,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항의했다. 그 부부는 경찰을 데려왔고 경찰은 그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촬영했다. 그런 다음에 경찰은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 경찰은 억지로 가정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종교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지 교인들 각 사람에게 물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납치되어 무슬림과 결혼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공식적인 예배 장소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금지이다. 은밀하게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심문을 당하고 무거운 벌금을 묻는다.

우즈베키스탄은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1999년부터 교회를 허가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인의 전화를 몰래 엿듣고, 기독교인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교회 예배를 감시한다.

현속 폴리 대표는, 무슬림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국가에서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도 핍박받는다고 설명한다. 타지키스탄에서 일하는 한국 VOM의 동역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십대 소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소년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식구들은 소년을 집에 가두고 때렸다.

“식구들은 소년을 몇 개월 동안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았죠.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 한국VOM 제공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핍박이 커질수록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 한 군데가 고통을 당하면 전체가 아픔을 느끼니까요.”(VOM 동역자)

한편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

인들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면 www.vomkorea.com을 방문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기도후원 - 기독교 박해국가 정보’로 들어오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세계 68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홍은혜 기자

연세대,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개최

문누가, 신인환, 이상훈 선교사 수상자로 선정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마치고. © 연세대 제공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언더우드기념 사업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연세대 루스체플 예배실에서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제정한 상으로, 세계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로는 문누가 선교사와 신인환 선교사, 이상훈 선교사가 선정됐다.

문누가 선교사는 중앙아시아 K국에서

청년대학생 제자훈련, 가정교회 사역, 치과 의료교육 및 현지 자립형 치과병원들을 설립하며 24년간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문성을 살린 의료선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현대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18년간 30여 명의 치과 의사 강사요원을 배출, 이들을 통해 연 3,000명에 달하는 인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인환 선교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아프리카 브룬디의 작은 시골마을에 한센인들을 위한 수술 병원 센터를 설립했다. 아내인 신은남 선교사와 함께 한센인들을 치료하는 한편 가난과 질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상훈 선교사는 24년간 르완다에서 개신교대학 개발학과 강의, 의료활동, 난민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르완다뿐 아니라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까지 의료 및 식량 물자를 보급하고 있으며 전후 지역 복구 및 지역 개발, 주택건축, 아동 후원, 전쟁미해군 직업훈련과 상담 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재 르완다 최초의 여성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가능한 선교, 지역에 맞는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홍은혜 기자

2018 몽골 한인선교사대회 개최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선교의 미래 발견한 귀한 시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2018 몽골 한인선교사대회’가 몽골 한인선교사회와 KGMN(Kwanglim Global Ministry Network) 주관으로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됐다. 모든 행사는 광림교회에서 후원하였으며 ‘주가 일 하시네’(사 46:11)라는 주제로 몽골 전역 약 250여명의 선교사 가족이 참가하였다. 이번 선교사대회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몽골선교의 미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세 번의 집회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과 찬미감이 있어야 함”을 전하며,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잃은 양에 대한 열정과 복음의 열정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선교”를 강조했다. 또 나눠

주는 목회를 통해 성과주의가 아닌,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현지 목회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자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선교사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림교회 교육국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영아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로 나눠 각 부서별 활동이 이뤄졌다.

둘째 날 저녁에는 송정미 사모의 찬양 콘서트가 이어졌다. 약 두 시간에 걸친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번 대회는 광림의료선교위원회가 동행하여 선교사들의 육적인 부분까지 돌보고 섬기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광림의료선교위원회 소속 의사(내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 피부과)와 간호사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0여 명의

의료선교위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선교사 가족을 진료하고 치료했다.

선교사들은 광림교회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동안 선교사역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영과 육이 모두 치유 받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했다.

또한, 남선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어르비트 선교센터’ 부지를 방문하여 중보 기도했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센터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얼마 전 토지사용권이 허가되어 설계기간을 거쳐 내년이면 건축 시작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대사는 “몽골은 가장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



광림의료선교위원회 위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선교사 가족을 진료하고 돌보았다. © 광림교회

근 IMF 구제 금융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교사역이 몽골 땅에 사랑과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요청했다.

몽골 한인선교사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파를 초월해 선교사들이 연합하는 시간이 되었고, 가족과 함께 여유와 쉼을 찾게 되었으며,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했다.

홍은혜 기자

구세군,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찾아 긴급구호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항 일대를 찾아 긴급구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5~6일 사이 태풍 ‘콩레이’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은 주택, 도로가 침수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작물 침수를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구세군은 10월 11일, 사랑의 밥차와 함께 가장 많은 수해 피해가 생긴 영덕 강구항을 찾아 무료 급식 활동을 펼치며 긴급구호를 진행했다.

구세군 경북지방(참령 조효정), 구세군 자선냄비(참령 광창희), 구세군사회복지부(참령 박희범) 및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한 이번 급식 나눔에서는 구세군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하여 수해 피해 이재민을 도왔다.

구세군은 태풍 ‘콩레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및 현장의 자원봉사자들 약 300여명에게 소고기 육개장, 김치찌개 등을 제공하며 집에서 먹는 밥과 같은 따뜻함을 전했으며, 큰 피해로 낙담한 주민들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에 주민들은 “이곳에서 먹은 가장 맛있는 식사”라며 고마움을 표했으며, 영덕군 관계자들도 구세군의 봉사에 감

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구세군은 침수 피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전하고, 영해읍 인근 수해주민 60여 가구에 침구 세트를 전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긴급구호 급식나눔은 12일 점심 무렵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마무리 됐다.

이나래 기자

밝은미래

우연이라 하기엔 운명에 가까운 이야기

아녀 우주

HELLO, UNIVERSE

에린 엔트라다 켈리 / 이원경 옮김 / 320쪽 / 14,500원

2018 뉴베리 대상

★★★★★

2018 뉴베리 대상 수상작!

출간 즉시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베스트셀러!!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진 단 하루의 이야기!
뭉툰 골목대장 '렛'이 소심한 '버질'에게 끔찍한 장난을 치던 그날,
네 아이의 우주가 서로 얹히기 시작했다!

네 아이가 겪은 일을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 미 아마존 베스트셀러 / 뉴욕, 시카고, LA 공공도서관 2017년 최고의 책 / 워싱턴포스터 2017년 최고의 책

한국교회 연합 단체의 하나 됨은 시대적 요청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11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하나 됨을 위한 방법론 및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강압에 의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참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문제로 비롯된, 신사참배 반대파와 이를 결의하여 참배한 것에 따른 파열음이 분열의 단초가 되었다. 결국 1951년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반대 입장의 고신파를 정죄하므로, 고신파가 분리되게 되었다. 또 신학적인 문제로, 1953년 예장과 기장으로 분열하였고, 1959년에는 WCC(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로,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 이후

예장 개혁 교단 등 여러 교단들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상당수의 교단들로 나누어져 있다. 거기에는 연합 단체들마저 분열하여, 지금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1918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인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NCCCK의 전신)가 조직되어, 1989년까지 단독 활동을 하다가, 그 해에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원로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이하 한기총)가 된다. 이렇게 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양 체제로 20여년을 활동하다가 2012년 한기총의 부선선거 등을 이유로, 한국교회연합(CIK-이하 한기연)이 분립하게 된다. 또 이 두 단체(한기총, 한기연)의 일치를 위한 교단장협의회와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듯하다가, 여의치 못하자, 2017년 한국교회총연합회가 만들어지므로, 한국교회는 4개의 연합 단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를 보면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에서는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4명의 발제자와 4명의 토론자를 세웠다. 사회에는 지형은 목사(남북나눔운동 이사장)가 맡았다. 발제1에서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 대표)는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같은 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과 한국교회 역사를 지우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하여 하나 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단일 기구로의 결합보다는 이슈와 주제에 따른 하나 됨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발제2의 김동원 목사(기장 전 총회장)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총괄하는 큰 지붕(연합체)을 만들어 모든 문제들이 이곳을 통하여 결정되며, 안티 기독교 등에 대한 대처 및 내적인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편협하고 오만한 자존심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제3의 조일래 목사(기성 전 총회장,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는 자신이 한기연 대표회장과 기성 총회장을 하면서, 한국교회 하나 되지 못함을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한 연합 기구의 운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예시하였다. 발제4의 이성구 목사(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는 연합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연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목회자들이 신전 의식(神前意識)이 있어야 하고, 공교회 중심의 원칙이 있어야 하고, 한국교회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원로회의 창립, 연합단체의 대표를 의장으로 호칭하여, 명예직을 지워야 하고, 조직 중심이 아니라, 한국교회 인프라를 집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는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면 되고, 회개운동과 하나님과 교단 중심으로 시대적 요청과 국가에 대한 기독교의 대표성을 위하여, 무조건 하나 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는

‘한국교회에 복음 전래 이후 한반도에서는 1950년까지, 60년 사이에 7번의 큰 전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거대담론으로, 연합 기관 통합이 중심이 아니고, 각자 교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재천 목사(기장 총무)는 ‘빅 텐트를 친다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인가?’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독교가 쇠퇴기에는 통합을 말하고, 부흥기에는 분열이 있었다고 하면서, 연합기관과 센터가 아닌,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되면 된다고 하였다. 최우식 목사(예장 합동 총무)는 ‘목사님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답을 준다’고 전제하고, 지도자들은 왜 한국교회에 답을 못 주는가? 라면서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므로,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으면 (연합)된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 전에는 김요셉 목사(한기연 전 대표회장)의 개회사와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의 환영사, 그리고 신상범 목사(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세분은 공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여 부끄럽다. 온전히 하나 되어, 교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야 하고, 사

회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의 자료에 보면, 지난 2014년 일선의 기자들에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연합 단체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91.9%가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한국교회 연합에 가장 결집률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64.9%가 ‘지도자들이 교권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연합 단체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는 질문에 ‘한국교회 대정부, 대사회 창구역할’과 ‘대사회 봉사 및 선교를 위한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에, 각각 복수로 응답한 것이 67.6%를 차지하였다. 한국교회 연합은 시대적 당위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더욱이 교단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연합단체의 하나 됨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바람과 시대적(역사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위헌·위법적 NAP 독소조항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성명

양성평등 이념의 헌법과 법률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하라!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수립하면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가졌던 초안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폐기하고, 각 정부 부처가 추천한 단체는 배제한 채, 법무부가 소위 코드가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목차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NAP는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 공개해야 하는 것을 불과 6일(주말을 제외하면 4일)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받

았다. NAP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의 헌법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국감을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온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논란 가운데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해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종교단체를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노골적으로 지목하였다. 또 가짜뉴스 프레임 싸우기를 통해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림으로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심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가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황희석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양성평등 기반의 헌법헌법과 법률을 정면 위반하는 성평등 이념을 여러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방안을 요구하는 등 NAP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둘째,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종교단체를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지목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셋째, 정부와 민주당은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이념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정과 정책 시행을 즉각 포기하라. 넷째, 광우병과 천암함 등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정부와 민주당은 성평등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가

짜뉴스 프레임을 씌으려는 사악한 의도를 포기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다섯째, 정부와 민주당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재갈을 채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 이는 종교 탄압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섯째, 최근 정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성평등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과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한 것이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폭포수처럼 굴러 흐르는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번성하고 풍요롭게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하옵소서. 풍부한 수량으로 감사의 물줄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겨울비에 활활 넘쳐흐르는 고향의 개울물을 생 각합니다.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가뭄에도 쉼 없이 흐르는 강물을 소망합니다. 어찌 교만한 자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있

습니까?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를 몸서리치게 하시니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봅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오니 주님의 공의로 인도해 주옵소서. 제 앞에 주의 길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철쭉 같은 어둠도 햇살 한줄기에

사라지듯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경제적 변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균형이 깊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온갖 특권과 권력을 독점하여 약자들을 착취합니다. 노동력을 탈취하며 사회 정의도 무너져서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님 외에 어느 심판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인데 어찌 어둠과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까?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습니다. 정직한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참 정의가 강물 같이 흘러 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

서.” 캄캄한 절망의 밤에도 가슴속 한줄기 희망의 햇살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밝고 맑은 날을 주옵소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암5:24)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젖줄 같은 강, 폭포수처럼 굴러 흐르는 공의, 풍부한 강물과 같은 정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맑은 삶의 신앙인들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리일으키게 하옵소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하소서. 믿음의 비밀을 깨닫한 양심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

나눔을 섬기게 하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송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자재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스크래치 북의 매력에 빠져 보세요!

나이트 뷰 인 스크래치 북
아름다운 세계의 도시

마이 페어리 테일 인 스크래치 북
그림이 아름다운 동화

보태니컬 가든 인 스크래치 북
마음에 위안을 주는 꽃과 시

더 조디악 인 스크래치 북
나와 당신의 운명, 별자리

패키지 구성 도안 12장 + 스크래치 전용 펜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세요. | 문의 전화 02-724-7851 **Style** 주식회사